

시대분별_Timing V.

구조적 악을 이기는 거룩과 성결의 힘

1. 바빌론의 시대. 성경의 관점

(1)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바빌론의 구조적 악

[요한계시록 18:2~3]

2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3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바빌론에 임한다. 바빌론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악이 구조화 된 상태를 말한다. 구조화 되었다는 것은 '악'이 재생산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악이 구조화 되어 자체 동력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다.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이 가득찬 상태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노아의 때, 바벨탑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모두 마찬가지이다. 의인 한 명도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이다.

ㄱ) 2절 :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

ㄴ) 3절 (구조적 악의 재생산) : 모든 민족이 바빌론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세상 왕들이(정치)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 세상의 상인(경제)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다. 바로 이 상태가 구조적으로 악이 재생산 되고있는 바빌론의 구조이다.

(2) 조직이 범죄한다는 것은?

나중에 빠져나올 수가 없다. 구조화 된 조직의 힘이다. 그 구조속에는 사람의 성공의 길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시대를 분별할 때 성경의 기준을 중심으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속에서 살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시대를 안다는 것은 그 시대 안에 있는 속성과 환경 상황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앞으로 펼쳐질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묘사한다.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신다. 성경은 세상이 바빌론과 같이 재생산 되고 있는 구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분별하라고 가르친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다. 때와 날은 모르지만 나무를 보며 어떤 계절인지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는 가장 강력한 척도는, 이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 세상을 보는 것이다. '바빌론'의 시대에 얼마만큼 가까이 왔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간단하다. '악'이 구조화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악한 구조안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 한 명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화된 악을 말한다.

(4) 구조화된 악, 바빌론에 대한 성경의 대안

[요한계시록 18:4]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구조화된 바빌론 안에 있는 성도들을 '내 백성'이라고 언급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빌론을 떠나라고 말씀하신다. 가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라)

성경은 넓은 길이라는 구조를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는다. 바빌론을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는다. 성경의 대안은 넓은 문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넓은 문안에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좁은 문에 대하여 언급하신다.

[마태복음 7:13]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세상속에 있지만 성도들은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늘의 법을 지키며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세상속에서 모든 영역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이 정립되어야 함을 말한다.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이다. 신앙은 바로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을 말한다.

(5) 구조화된 악의 고리를 끊고 나와야 한다. 악의 악순환 구조에서 나와야 한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은, 자신을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던 세상의 악순환 구조로부터 나와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

2.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돌아가야 하는 성도와 교회

악이 재생산 되는 바빌론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 거룩과 성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 신부의 영성 (기쁨을 경작하라)

마지막 때 세례요한의 영성이 필요하다. 나실인의 언약이 있는 자.

[누가복음 1:15]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룩과 성결로 옷 입은 거룩한 신부의 영성이 필요하다. 신부의 영성의 핵심은 '기쁨'이다. 억지로 율법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을 위해 자신을 단장하는 것은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다.

교회는 신부이다. 그러므로 교회안에 신랑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야 한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더 깊게 증가시켜야 한다.

(2)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디모데전서 4: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영적인 영역이다. 지식과 훈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깊이와 넓이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마음안에 ‘거룩한 삶’을 향한 불꽃이 생겨난다.

기도는 그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의 불이 타오르도록 해야한다. 기도는 우리의 영을 활성화 시키는 가장 강력한 통로이다.

(3) 자아를 죽이는 일 - 수도원 영성의 회복 필요.

자아를 죽이는 일은 수도원 영성의 핵심이다. 수도원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고 훈련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수도원 영성은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목적으로 한다. 차단하고 단절한다. 차단하고 단절하는 분리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악한 세상의 구조로부터 자신의 성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훈련된 삶을 말한다.